

第11回 科學의 날 紀念式 盛了

榮譽의 科學技術賞 施賞

科學：任慶彬・技術：金正雄・技能：李孟容

科學技術人의 決議文 採擇

4月 21日 科學의 날을 맞아 科學技術處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閔寬植)는 第11回 “科學의 날” 紀念式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준슨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紀念式典에는 최규하 國務總理, 심의환 總務處長官, 최형섭 科技處長官, 고광득 文敎部次官, 민관식 科總會長, 科學技術界 元老, 經濟團體長이 參席했고 科學 技術關係人士 500餘名이 모여 盛大한 式을 가졌다.

은광女高 52人組 브라스밴드의 은은한 연주 속에 舉行된 紀念式에서는 우리나라 科學 技術發展에 功獻한 金允基박사(74歲)등 26名의 有功者에게 褒賞이 안겨졌으며, 1978年度 科學技術賞(大統領賞) 科學, 技術, 技能 3個 最高 榮譽의 賞이 施賞되었다.

이날 최규하 國務總理는 致辭를 통해 「現代는 科學文明의 時代라고 일컬을 만큼 科學技術은 人類生活의 모든 分野에 深大한 影響을 주고 있으며 나라마다 그 發展을 左右하는 하나의 關鍵이 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世界의인 추세를 볼때 科學 技術이 발달한 나라 일수록 富強하고 잘사는 것이 事實이며 한 나라의 科學 技術의 水準은 그 나라 國力을 가늠하는 尺度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科學 技術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최總理는 이어서 우리앞에는 1人當 國民總生産 1,000弗, 輸出 125億弗달성의 重要課題와 重化學工業育成 産業의 高度化, 防衛産業을 뒷받침함으로써 自衛力量 強化를 위한 努力과 直結되는 課題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총리는 科學 技術의 向上에 注力할것과 관련된 制度의 發展을 促進시키고 各種 支援 施策을 積極化할 方針을 밝혔으며, 科學 技術分野에 對한 投資를 大幅 增大할것과 技術 技能人力을 確保하는데 注力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總理는 科學 技術의 發展을 위해서는 全國民의인 參與意識과 支持가 要請되고 科學 技術인을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造成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최總理는 이날 榮譽의 科學技術賞 受賞者와 有功者 및 科學 技術人의 勞苦를 致賀했다.

이어서 科學技術인의 決議文을 마경석 科總副會長이 朗讀하고 式을 마쳤으며 모든 科學 技術人이 KIST 뜰에 마련된 다과회에 참석 수상자를 축하해 주었다.

과학기술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과학상 任慶彬(56歲) 서울大學 農大교수
기술상 金正雄(44歲) 大宇重工業 常務理事
기능상 李孟容(53歲) 韓洋化學 응집계장